

APEC 대학생 앰버서더들 두 달간 콘텐츠 120건 제작

경상북도는 27, 28일 경주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학생 앰버서더의 역량강화와 홍보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3월 선발된 대학생 앰버서더 52명(내국인 43, 외국인 9)은 2개월의 활동을 통해 120건(영상 35건, 카드뉴스 57건, 블로그 28건)의 콘텐츠를 생산해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APEC 정상회의와 개최지를 홍보하고 있다.

행사에는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을 비롯해 3월에 선발된 대학생 앰버서더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으며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강의와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앰버서더들은 APEC 정상회의 현장투어를 통해 회의장, 만찬장 등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고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요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서 온 내외국인 청년들이 참여해 다국적 APEC 앰버서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이번 워크숍이 앰버서더들의 실전 경험과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미디어 활용 홍보”

경북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
“전략 구체화 도민 참여 확산 주력”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 홍보부서가 공동 홍보 전략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6일·27일 이틀간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북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범도민 인식 확산과 통합 홍보체계인 ‘원 채널’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경북도 대변인실과 APEC준비지원단, 도내 시군 홍보부서 담당자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관련 홍보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홍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첫날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이 디지털 대전환기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지난 27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위한 APEC 홍보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AI 기반 콘텐츠 전략, 뉴미디어 활용 방향 등을 제시하며 시군 간 협력을 통한 통합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특보 시절 기획한 영상콘텐츠를 사례로 제시해 실무적 관심을 모았다.

이어 박장호 APEC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과 홍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

로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도정 홍보와 관련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도자료 작성법과 홍보기법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도자료 작성법과 선진 사례가 공유됐다.

경북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PEC 정상회의의 홍보 전략을 구체화

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과 도민 참여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시군 홍보부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홍보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PEC 정상회의의 홍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